

## 경제 및 고용 동향

◆ 2009년 6월 광공업 생산 감소, 서비스업 생산 증가, 소비 증가

○ 2009년 6월 광공업 생산은 반도체 및 부품, 기타운송장비는 증가하였으나 자동차, 기계장비 등의 부진으로 전년동월대비 1.2%(전월대비 5.7% 증가) 감소함. 서비스업은 금융 및 보험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의 호조로 전년동월대비 2.6%(전월대비 1.7% 증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광공업 생산은 반도체 및 부품(8.3%), 기타 운송장비(22.0%), 전기장비(9.3%)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였으나 자동차(-12.1%), 기계장비(-10.8%), 1차 금속(-11.6%) 등의 업종에서는 생산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 서비스업 생산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8.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8.5%),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8.5%) 등을 중심으로 증가한 반면, 운수업(-7.1%),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6.1%), 협회·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0.9%) 등의 업종에서 전년동월대비 생산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 광공업·서비스업 생산확산지수 모두 전월대비 각각 5.6p, 13.1p 상승함.

— 광공업 생산확산지수는 2009년 3월부터 4개월 연속 50을 상회하고 있어 광공업 생산 증가가 업종 전반에 걸쳐 고르게 확산되고 있는 모습이며 서비스업 또한 광공업 생산확산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2009년 2월부터 5개월 연속 50을 상회함.

- 2009년 6월 소비는 7.3% 증가, 설비투자는 5.6% 감소함.
  - 소비재 판매액지수는 승용차 등 내구재, 차량연료 등 비내구재의 호조로 7.3% 증가한 반면, 설비투자는 반도체 장비 등 기계류 투자가 줄어 5.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한편, 건설기성(경상)은 공공부문의 토목공사 실적이 증가하여 전년동월 대비 1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현재의 경기 사정을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1.6%p 상승하여 2009년 3월부터 4개월 연속 상승을 기록하였으며,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 전년동월비도 전월대비 3.3%p 상승하여 2009년 1월부터 6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2/4분기 광공업 생산은 전년동기대비 6.2% 감소, 서비스업 생산은 1.6% 증가, 소비는 1.5% 증가한 반면, 설비투자는 전년동기대비 13.7% 감소함.

〈표 1〉 최근 경제일반 동향

(단위 :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007					2008					2009			
		1/4	2/4	3/4	4/4	연간	1/4	2/4	6월	3/4	4/4	연간	1/4	2/4p	6월p
생산	광공업 생산	4.0	7.0	5.9	11.0	6.8	10.6	8.9	7.0	5.6	11.3	3.0	-15.5	-6.2	-1.2 (5.7)
	제조업 생산	4.1	7.1	6.2	11.2	7.0	10.7	9.3	7.2	5.5	-12.1	3.0	-16.4	-6.6	-1.5 (5.8)
	출 하	5.1	7.2	5.4	10.6	7.1	8.9	6.6	4.7	5.3	-10.1	2.4	-14.7	-5.8	-0.5 (5.7)
	수 출	6.7	9.9	9.1	16.2	10.2	14.3	14.3	11.5	10.3	-8.8	7.1	-12.4	-4.7	-0.8 (4.0)
	내 수	4.1	4.9	3.0	6.8	4.9	5.3	1.7	0.2	1.7	-11.0	-0.7	-16.3	-6.6	-0.3 (7.8)
	서비스업 생산	5.4	6.4	7.2	6.8	6.4	6.4	4.8	3.0	3.2	-0.3	3.4	-0.4	1.6	2.6 (1.7)
소비	소비재 판매	5.7	5.2	7.1	4.5	5.3	3.9	2.9	-0.7	1.4	-4.6	1.0	-4.9	1.5	7.3 (1.8)
투자	설비투자	12.8	12.1	0.7	9.2	8.6	-0.9	2.7	-2.7	5.3	-16.2	-4.3	-17.7	-13.7	-5.6 (9.5)
물가		2.1	2.4	2.3	3.3	2.5	3.8	4.8	5.9	5.5	4.5	2.5	3.9	2.8	1.6 (0.4)

주 : p는 잠정치임. ( )안은 전기(월)비를 나타냄.

1) 광공업 생산은 광업(O), 제조업(D), 전기·가스업(E, F)을 포함하나 거의 대부분 제조업을 대변함.

2)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제9차 개정, 2007. 12. 28)상의 13개 대분류(도소매업(G), 운수업(H), 숙박 및 음식점업(I),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 및 임대업(L),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N),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O), 교육서비스업(P),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S),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을 포함하며 이 중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산업에서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은 제외함.

3) 물가는 7월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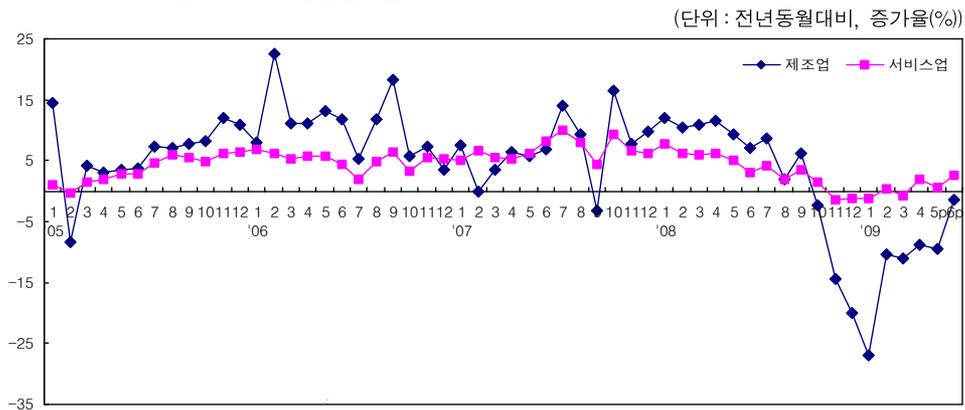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서비스업활동동향』, 각호.

◆ 2009년 7월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1.6% 상승(생활물가지수 0.4% 상승)

○ 2009년 7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3.0(2005=100)로 나타나 전월대비 0.4%, 전년동월대비 1.6%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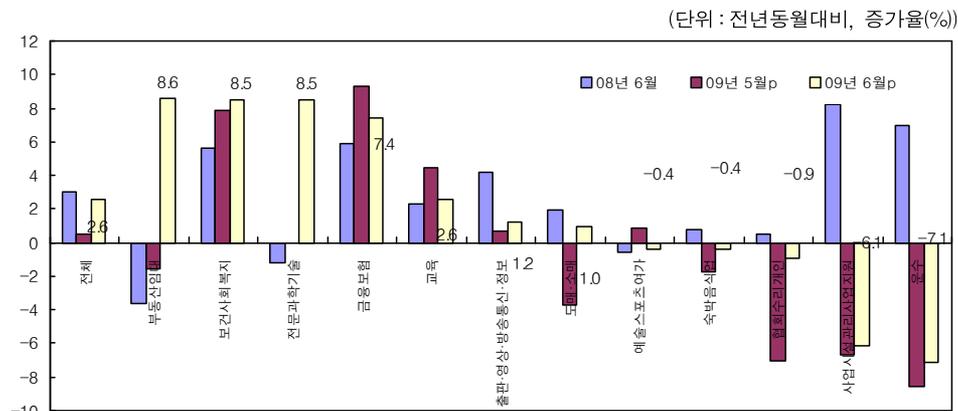
- 2009년 2월 4.1%로 상승한 이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5개월째 감소함.
- 전월대비 교통(1.3%), 식료품·비주류음료(0.8%), 주거 및 수도·광열(0.7%) 등을 중심으로 상승한 반면, 가구집기·가사용품부문(-0.3%), 주류·담배부문(-0.1%), 기타 잡비부문(-0.1%)은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1] 제조업 및 서비스업 생산증가율



주 : p는 잠정치임. 서비스업 활동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대분류 11개 품목임.  
 자료 : 통계청, 『2009년 3월 산업활동동향』, 2009. 5.

[그림 2] 서비스업 업종별 생산추이



주 :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KOSIS.  
 (김복순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

◆ 취업자 감소 지속

- 2009년 2/4분기 중 경제활동인구는 24,680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42천 명(0.2%) 증가
  - 남성 경제활동인구는 14,461천 명으로 141천 명(1.0%) 증가한 반면, 여성은 10,220천 명으로 98천 명(-1.0%) 감소함.
- 2009년 2/4분기 중 경제활동참가율은 61.7%로 전년동기대비 0.6%p 하락
  - 성별로 보면, 남성(73.9%)이 전년동기대비 0.3%p 하락하고, 여성(49.9%)이 전년동기대비 1.1%p 하락함.
  - 2008년 하반기 이후 여성 참가율의 하락세가 가속화되는 경향을 보임(그림 3 참조).
- 2009년 2/4분기 중 고용률은 59.3%로 전년동기대비 1.1%p 하락
  - 남성의 고용률은 70.8%로 전년동기대비 0.9%p 하락하였고, 여성의 고용률은 48.3%로 전년동기대비 0.2%p 하락하였음.
- 2009년 2/4분기 중 취업자는 23,737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34천 명(-0.6%)이 감소함.
  - 성별로 보면, 남성 취업자는 13,849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24천 명(0.2%)이 증가한 반면, 여성 취업자는 9,888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58천 명(-1.6%)이 감소함 (그림 4 참조).

〈표 2〉 최근의 고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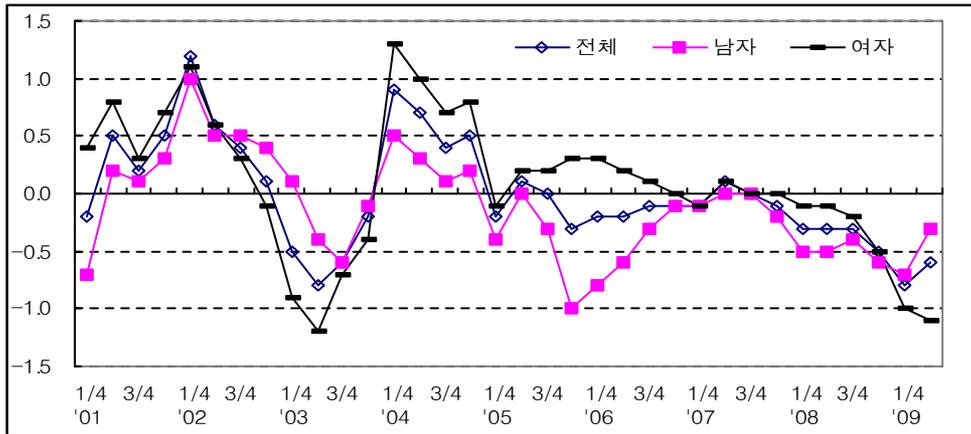
(단위: 천 명, %)

	2008					2009			
	1/4분기	2/4분기	6월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5월	6월
경제활동인구	23,852 ( 0.7)	24,638 ( 0.6)	24,727 ( 0.5)	24,503 ( 0.6)	24,394 ( 0.3)	23,812 (-0.2)	24,680 ( 0.2)	24,658 (-0.1)	24,927 ( 0.8)
참가율	60.5	62.3	62.5	61.8	61.3	59.7	61.7	61.6	62.2
취업자	23,051 ( 0.9)	23,871 ( 0.7)	23,963 ( 0.6)	23,752 ( 0.6)	23,636 ( 0.3)	22,904 (-0.6)	23,737 (-0.6)	23,720 (-0.9)	23,967 ( 0.0)
고용률	58.5	60.4	60.5	59.9	59.4	57.4	59.3	59.3	59.8
실업자	801	767	764	752	757	908	943	938	960
실업률	3.4	3.1	3.1	3.1	3.1	3.8	3.8	3.8	3.9
비경제활동인구	15,575 ( 1.8)	14,903 ( 1.7)	14,854 ( 1.8)	15,154 ( 1.9)	15,373 ( 2.5)	16,088 (3.3)	15,347 ( 3.0)	15,369 ( 3.5)	15,151 ( 2.0)

주: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고용률 = 취업자 / 생산가능인구\*100  
 자료: 통계청, 『2009년 6월 고용동향』, 2009. 7.

[그림 3]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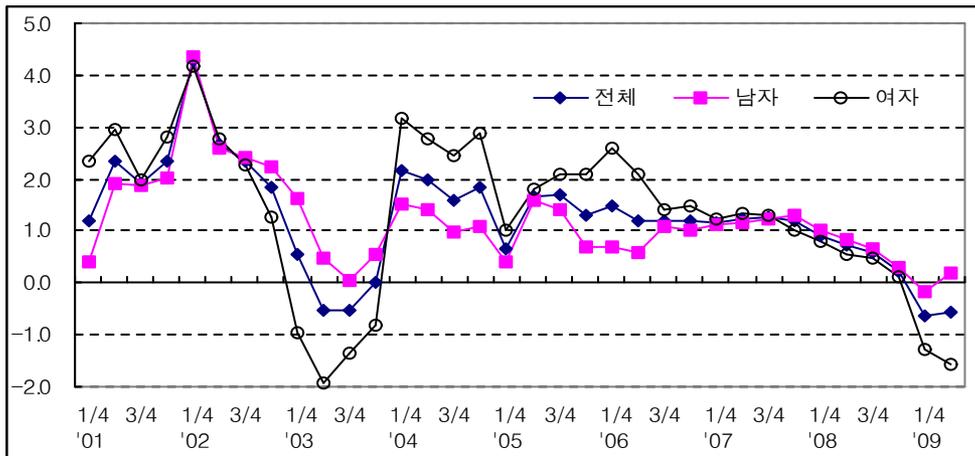
(단위: %p, 전년동기대비)



자료: 통계청 KOSIS.

[그림 4] 성별 취업자 증가율

(단위: %, 전년동기대비)



자료: 통계청 KOSIS.

- 2009년 2/4분기 중 실업자는 943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76천 명(22.6%) 증가하였으며, 실업률은 3.8%로 전년동기대비 0.7%p 상승함.
  - 남성 실업자는 612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16천 명(20.0%) 증가하였고, 여성 실업자는 332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60천 명(23.1%) 증가하였음.
  - 실업률은 남성이 4.2%로 전년동기대비 0.7%p, 여성은 3.2%로 전년동기대비 0.6%p 상승하였음.

- 2009년 2/4분기 중 비경제활동인구는 15,347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445천 명(3.3%) 증가
  - 남성 비경제활동인구는 5,103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33천 명(2.7%) 증가하였고,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10,245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312천 명(3.1%)이 증가함.
  - 비경제활동인구 중 특별한 사유 없이 그냥 쉬었다고 응답한 ‘쉬었음’은 1,299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12천 명(9.4%), 구직단념자는 149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45천 명(43.8%), 정규교육기관 통학, 입시학원 통학,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통학을 포함하는 ‘통학’은 4,300천 명으로 58천 명(1.4%) 증가함.

◆ 제조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취업자 감소세 가속화

- 2009년 2/4분기 중 산업별 취업자의 전년동기대비 증감을 보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341천 명, 4.5%)에서 증가한 반면, 제조업(-151천 명, -3.8%),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136천 명, -2.4%), 건설업(-113천 명, -6.0%), 전기·운수·통신·금융업(-50천 명, -1.8%), 농림어업(-25천 명, -1.3%)에서는 감소함.

〈표 3〉 산업별 취업자

(단위: 천 명, %)

	2008					2009			
	1/4분기	2/4분기	6월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5월	6월
전 산업	23,051 ( 0.9)	23,871 ( 0.7)	23,963 ( 0.6)	23,752 ( 0.6)	23,636 ( 0.3)	22,904 (-0.6)	23,737 (-0.6)	23,720 (-0.9)	23,967 ( 0.0)
농림어업	1,384 (-4.4)	1,842 (-2.8)	1,890 (-2.8)	1,824 (-2.0)	1,695 ( 0.5)	1,398 ( 1.0)	1,817 (-1.3)	1,837 (-2.6)	1,858 (-0.3)
제조업	4,013 (-0.4)	3,993 (-0.8)	4,107 (-0.8)	3,934 (-1.3)	3,910 (-2.6)	3,850 (-4.1)	3,843 (-3.8)	3,846 (-3.5)	3,836 (-3.9)
건설업	1,748 (-1.2)	1,886 (-2.4)	1,874 (-3.1)	1,801 (-2.2)	1,811 (-2.2)	1,705 (-2.5)	1,772 (-6.0)	1,768 (-6.6)	1,776 (-4.7)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5,704 (-0.6)	5,670 (-0.7)	5,677 (-0.6)	5,670 (-0.9)	5,657 (-1.1)	5,589 (-2.0)	5,534 (-2.4)	5,519 (-2.8)	5,551 (-2.2)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	7,382 ( 3.8)	7,643 ( 4.0)	8,002 ( 4.3)	7,721 ( 4.5)	7,787 ( 4.0)	7,618 ( 3.2)	7,984 ( 4.5)	7,954 ( 4.1)	8,145 ( 5.4)
전기·운수·통신 및 금융업	2,796 ( 2.7)	2,816 ( 1.8)	2,394 (-0.1)	2,778 (-0.7)	2,754 (-1.9)	2,722 (-2.6)	2,765 (-1.8)	2,774 (-2.1)	2,779 (-0.9)

주: 1)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2) 2009년부터 9차 개정 산업분류를 적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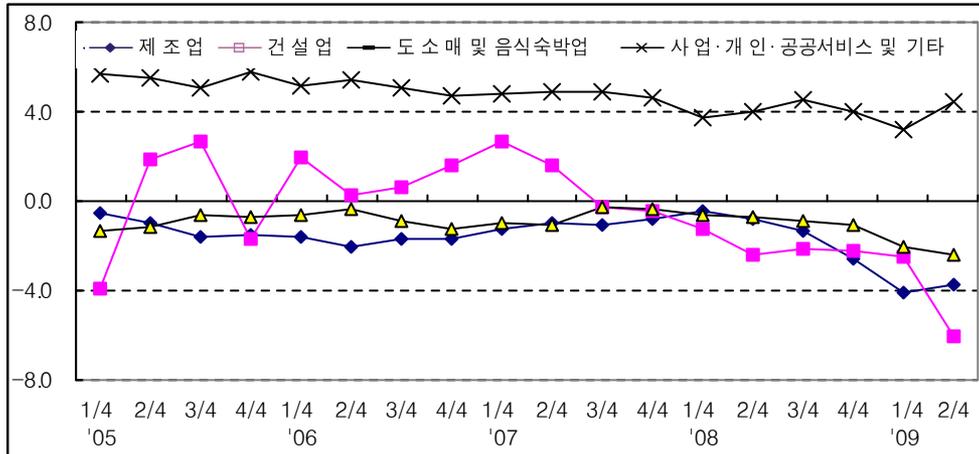
3)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는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 부동산 및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을 포함.

자료: 통계청, 『2009년 6월 고용동향』, 2009. 7.

- 제조업, 건설업의 취업자 감소세가 2008년 이후 가속화되는 경향을 보임(그림 5 참조).

[그림 5] 산업별 취업자 증가율

(단위 : % 전년동기대비)



자료 : 통계청 KOSIS.

◆ 36시간 미만 취업자 증가, 임시·일용근로자 취업자 감소세 지속

- 2009년 2/4분기 중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는 7,212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309천 명(-4.1%) 감소하였고, 임금근로자는 16,525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75천 명(1.1%) 증가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9,294천 명으로 313천 명(3.5%) 증가한 반면, 임시근로자는 5,136천 명으로 5천 명(-0.1%), 일용근로자는 2,094천 명으로 133천 명(-6.0%) 감소함.
  - 2008년 1/4분기 이후 임시·일용근로자의 감소가 지속됨(그림 6 참조).
- 2009년 2/4분기 중 취업시간대별 취업자를 보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2,997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58천 명(-1.9%)감소하였고,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20,480천 명으로 67천 명(-3.0%) 감소함.
  - 18시간 미만 취업자 921천 명 중에서 일거리가 없거나 사업부진 등의 경제적 이유로 추가취업 및 전직을 희망하는 자는 184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47천 명(34.5%) 증가하였음.

〈표 4〉 종사상 지위별 및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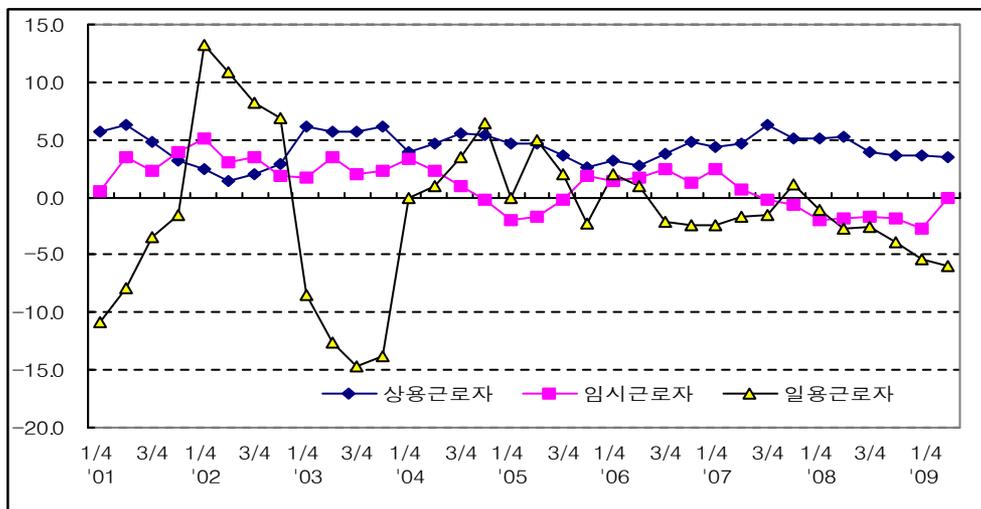
(단위:천 명, %)

	2008					2009			
	1/4분기	2/4분기	6월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5월	6월
전 체	23,051 ( 0.9)	23,871 ( 0.7)	23,963 ( 0.6)	23,752 ( 0.6)	23,636 ( 0.3)	22,904 (-0.6)	23,737 (-0.6)	23,720 (-0.9)	23,967 ( 0.0)
비임금근로자	7,097 (-1.4)	7,521 (-1.5)	7,578 (-1.5)	7,522 (-0.9)	7,343 (-1.1)	6,877 (-3.1)	7,212 (-4.1)	7,236 (-4.0)	7,231 (-4.6)
자영업주	5,816 (-1.3)	6,073 (-1.1)	6,093 (-1.6)	6,052 (-1.2)	5,939 (-1.6)	5,620 (-3.4)	5,787 (-4.7)	5,791 (-4.9)	5,806 (-4.7)
무급가족종사자	1,281 (-1.8)	1,449 (-3.3)	1,485 (-0.9)	1,470 ( 0.7)	1,404 ( 0.9)	1,258 (-1.8)	1,425 (-1.6)	1,445 ( 0.2)	1,425 (-4.0)
임금근로자	15,954 ( 2.0)	16,350 ( 1.8)	16,385 ( 1.6)	16,229 ( 1.3)	16,294 ( 0.9)	16,027 ( 0.5)	16,525 ( 1.1)	16,484 ( 0.5)	16,736 ( 2.1)
상용근로자	8,839 ( 5.2)	8,981 ( 5.2)	9,039 ( 4.9)	9,101 ( 4.0)	9,106 ( 3.6)	9,157 ( 3.6)	9,294 ( 3.5)	9,316 ( 3.4)	9,340 ( 3.3)
임시근로자	5,064 (-1.9)	5,141 (-1.8)	5,132 (-1.6)	5,050 (-1.6)	5,062 (-1.8)	4,928 (-2.7)	5,136 (-0.1)	5,076 (-1.7)	5,281 ( 2.9)
일용근로자	2,051 (-1.2)	2,227 (-2.8)	2,214 (-3.3)	2,079 (-2.6)	2,126 (-3.8)	1,942 (-5.3)	2,094 (-6.0)	2,092 (-6.2)	2,115 (-4.5)
36시간 미만	2,770 (-8.1)	3,055 (19.1)	2,679 ( 6.0)	5,132 (29.5)	2,833 (11.1)	3,092 (11.6)	2,997 (-1.9)	3,007 (-24.5)	2,996 (11.9)
36시간 이상	19,888 ( 2.6)	20,546 (-1.7)	20,964 (-0.5)	18,139 (-5.7)	20,552 (-1.2)	19,351 (-2.7)	20,480 (-3.0)	20,459 ( 3.8)	20,681 (-1.3)

주: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통계청, 『2009년 6월 고용동향』, 2009. 7.

〔그림 6〕 임금근로자 증가율

(단위: % 전년동기대비)



자료: 통계청, KOSIS.

◆ 모든 연령대, 모든 교육정도별 실업자 증가

- 2009년 2/4분기 중 연령계층별 실업자 및 실업률은 전 연령에서 증가하였고, 특히 30대와 50대의 증가가 두드러짐.
  - 2009년 2/4분기 중 연령계층별 실업률은 20대(7.8%, 0.6%p), 30대(3.9%, 0.9%p), 40대(2.6%, 0.5%p), 50대(2.7%, 0.9%p), 60대 이상(1.9%, 0.7%p)에서 증가함.
  - 교육정도별 실업률은 전년동기대비 중졸 이하(2.6%, 0.4%p), 고졸(4.6%, 0.9%), 대졸 이상(3.7%, 0.6%p) 모두 상승하였음.
- 2009년 2/4분기 중 전체 실업자 943천 명을 과거 취업경험 유무로 살펴보면, 취업무경험 실업자는 38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1천 명 감소한 반면, 취업유경험 실업자는 905천 명으로 187천 명 증가했음.

〈표 5〉 연령별·교육수준별 실업자 및 실업률

(단위: 천 명, %)

	2008					2009			
	1/4분기	2/4분기	6월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5월	6월
	전 체	801(3.4)		767(3.1)	764(3.1)	752(3.1)	757(3.1)		
15~29세	328(7.3)	327(7.4)	346(7.8)	303(6.9)	300(7.0)	368(8.6)	351(8.0)	333(7.6)	372(8.4)
30~39세	193(3.1)	187(3.0)	173(2.8)	193(3.1)	202(3.3)	227(3.7)	237(3.9)	227(3.7)	233(3.8)
40~49세	160(2.4)	138(2.1)	131(1.9)	138(2.1)	134(2.0)	166(2.5)	176(2.6)	186(2.8)	166(2.5)
50~59세	83(2.0)	82(1.8)	81(1.8)	91(2.1)	93(2.1)	108(2.4)	127(2.7)	132(2.8)	132(2.8)
60세 이상	38(1.6)	33(1.2)	33(1.2)	27(1.0)	29(1.1)	39(1.6)	53(1.9)	60(2.1)	57(1.9)
중졸 이하	128(2.5)	120(2.2)	125(2.2)	113(2.1)	111(2.1)	143(2.9)	141(2.6)	152(2.8)	142(2.6)
고 졸	402(4.0)	368(3.7)	387(3.8)	381(3.8)	383(3.8)	438(4.5)	459(4.6)	440(4.4)	495(4.9)
대졸 이상	271(3.1)	279(3.1)	253(2.8)	258(2.9)	263(2.9)	327(3.6)	343(3.7)	346(3.7)	324(3.5)
취업무경험 실업자	44	49	57	39	37	47	38	35	47
취업유경험 실업자	757	718	707	713	721	861	905	903	914

주: ( )안의 수치는 실업률.

자료: 통계청, 『2009년 6월 고용동향』, 2009. 7.

(정성미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

## 가계수지 동향

◆ 2009년 1/4분기 2인 이상 전국가구의 소득은 소폭 증가한 반면, 가계지출은 감소

○ 2009년 1/4분기 전국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전년동기대비 0.8% 증가하였음(실질로는 3.0% 감소).

- 전국가구의 경상소득 중 근로소득(2.0%)과 이전소득(6.8%)은 증가하였으나, 사업소득(-2.2%), 재산소득(-13.6%)은 감소하였음.
- 소비지출의 경우는 교육비, 보건의료 등의 소비가 증가한 반면,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3.5%), 주류 및 담배(-13.5%) 및 교통(-15.7%) 등의 감소에 따라 전년동기대

〈표 6〉 2인 이상 전국가구의 분기별 가계수지 동향

(단위: 천 원, %)

	2008					2009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소득	3,416 ( 6.0)	3,450 ( 6.5)	3,302 ( 6.8)	3,506 ( 7.1)	3,404 ( 3.7)	3,476 ( 0.8)
소득(실질)	3,114 ( 1.3)	3,213 ( 2.6)	3,011 ( 1.9)	3,156 ( 1.5)	3,073 ( -0.7)	3,116 ( -3.0)
경상소득	3,240 ( 6.5)	3,241 ( 7.1)	3,148 ( 6.9)	3,325 ( 6.9)	3,248 ( 5.0)	3,285 ( 1.4)
근로소득	2,207 ( 8.2)	2,207 (10.0)	2,128 ( 8.8)	2,284 ( 7.8)	2,209 ( 6.5)	2,251 ( 2.0)
사업소득	731 ( 1.8)	724 ( 2.2)	739 ( 2.8)	738 ( 3.2)	721 ( -0.8)	708 ( -2.2)
재산소득	21 (-0.9)	22 (-1.5)	20 (-2.4)	21 ( 9.6)	19 ( -8.5)	19 (-13.6)
이전소득	282 ( 6.1)	288 (-0.6)	261 ( 4.9)	282 ( 9.5)	299 ( 11.0)	307 ( 6.8)
비경상소득	175 (-1.7)	209 (-1.7)	153 ( 4.0)	182 (11.7)	157 (-17.5)	191 ( -8.7)
가계지출	2,731 ( 5.2)	2,847 ( 7.0)	2,619 ( 5.8)	2,778 ( 5.3)	2,681 ( 2.9)	2,785 ( -2.2)
소비	2,115 ( 4.9)	2,214 ( 6.3)	2,042 ( 6.0)	2,134 ( 4.8)	2,070 ( 2.4)	2,138 ( -3.5)
소비(실질)	1,930 ( 0.4)	2,056 ( 2.5)	1,872 ( 1.4)	1,925 (-0.5)	1,880 ( -1.8)	1,916 ( -6.8)
비소비지출	616 ( 6.5)	632 ( 9.3)	576 ( 5.0)	645 ( 7.2)	612 ( 4.5)	647 ( 2.3)
가처분소득	2,799 ( 5.9)	2,818 ( 5.9)	2,725 ( 7.2)	2,862 ( 7.1)	2,793 ( 3.6)	2,829 ( 0.4)
흑자액	684 ( 9.3)	603 ( 4.4)	683 (10.8)	728 (14.6)	723 ( 7.0)	691 ( 14.6)
평균 소비성향	75.6	78.6	74.9	74.6	74.1	75.6

주 : 1) 실질소득(소비)=(소득/2005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100

2) 가처분소득=소득-비소비지출(조세, 사회보험료 등의 공적지출과 타가구 송금 등의 사적지출이 포함됨)

3) 흑자액=가처분소득-소비지출

4) 평균 소비성향=(소비지출/가처분소득)×100

5) (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임.

자료 : 통계청, 『2009년 1/4분기 가계동향』, 2009. 5.

비 3.6% 감소하였음(실질로는 6.8% 감소).

- 비소비지출의 경우는 사회보장(건강보험료 등) 및 이자비용은 각각 10.7%, 17.2% 증가한 반면, 조세 및 가구간 이전지출은 각각 2.0%, 2.9% 감소

○ 도시근로자가구의 월평균 소득(명목)은 전년동기대비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실질로는 3.7% 감소하여 전분기에 비해 감소폭이 확대됨.

- 2009년 1/4분기 도시근로자가구의 경상소득은 이전소득(28.1%)과 사업소득(3.9%)이 증가한 반면, 근로소득(-1.9%)과 재산소득(-2.0%)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비경상소득은 5.2% 감소하였음.
- 소비지출은 전년동기대비 3.5% 감소하였으며 실질로는 7.0% 감소하였음.

〈표 7〉 2인 이상 도시근로자가구의 분기별 가계수지 동향

(단위: 천 원, %)

	2008					2009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소득	3,921 ( 6.8)	4,003 ( 6.7)	3,793 ( 9.4)	4,017 ( 7.8)	3,870 ( 3.5)	4,003 ( 0.0)
소득(실질)	3,574 ( 2.0)	3,728 ( 2.8)	3,459 ( 4.3)	3,616 ( 2.1)	3,493 ( -0.9)	3,588 (-3.7)
경상소득	3,748 ( 7.1)	3,795 ( 7.6)	3,629 ( 8.7)	3,865 ( 7.8)	3,705 ( 4.5)	3,784 (-0.3)
근로소득	3,419 ( 7.6)	3,456 ( 8.4)	3,302 ( 8.6)	3,536 ( 8.3)	3,381 ( 5.3)	3,390 (-1.9)
사업소득	141 (-4.8)	142 (-2.7)	146 ( 3.3)	144 (-6.8)	130 (-12.6)	148 ( 3.9)
재산소득	15 (-1.9)	17 (-5.2)	15 ( 5.3)	15 ( 2.5)	13 ( -9.0)	17 (-2.0)
이전소득	174 ( 8.7)	180 ( 2.2)	167 (16.9)	170 (13.5)	181 ( 4.5)	230 (28.1)
비경상소득	172 ( 0.3)	208 (-7.0)	163 (27.9)	153 ( 5.6)	165 (-13.6)	219 ( 5.2)
가계지출	3,011 ( 7.3)	3,150 ( 9.0)	2,918 ( 9.4)	3,056 ( 6.9)	2,922 ( 3.8)	3,079 (-2.3)
소비	2,291 ( 6.8)	2,407 ( 8.3)	2,237 ( 9.5)	2,303 ( 5.7)	2,216 ( 3.7)	2,322 (-3.5)
소비(실질)	2,089 ( 2.1)	2,235 ( 4.3)	2,049 ( 4.7)	2,076 ( 0.3)	2,009 ( -0.8)	2,080 (-7.0)
비소비지출	721 ( 8.9)	743 (11.4)	681 ( 9.2)	752 (10.6)	706 ( 4.3)	757 ( 1.9)
가처분소득	3,200 ( 6.4)	3,260 ( 5.7)	3,111 ( 9.4)	3,265 ( 7.1)	3,164 ( 3.4)	3,246 (-0.4)
흑자액	909 ( 5.3)	853 (-0.9)	875 ( 9.3)	962 (10.7)	948 ( 2.7)	924 ( 8.4)
평균소비성향	71.6	73.8	71.9	70.5	70.0	71.5

주: <표 6>과 동일.

(반정호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

## 노사관계 동향

◆ 노사분규 발생건수 전년동기대비 증가, 근로손실일수 전년동기대비 감소

- 2009년 1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누적된 노사분규 발생건수는 65건으로 전년동기대비 10.2% 증가
- 2009년 1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누적된 근로손실일수는 311,540일로 전년동기대비 33.6% 감소

〈표 8〉 노사분규 발생 추이

(단위: 개소, %)

	2009. 1. 1~2009. 7. 30	전년동기	증 감
노사분규 발생건수	65	59	10.2
종 결	46	40	-
진 행	19 (1)	19 (8)	( )안은 전년도 이월
근로손실일수	311,540	469,502	-33.6

주: 당해 연도의 누적치임. 근로손실일수는 7월 29일 기준임.  
 자료: 노동부.

◆ 노동부, 상반기 협약임금 인상률 1.4%로 외환위기 이래 최저

- 노동부가 100인 이상 사업장 6,781개소 중 2009년 6월 말 현재 임금교섭을 타결한 2,451개소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 노사가 합의한 협약임금 평균인상률은 1.4%로 외환위기(1998~99년) 이래 가장 낮은 인상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금교섭 타결률(임금교섭이 타결 완료된 사업장 비율)은 36.1%로 전년동기대비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또한 임금을 동결했거나 삭감한 사업장은 타결사업장(2,451개소)의 46.1%인 1,129개소로 전년동기(149개소)에 비해 7.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외환위기(1998~99년) 이래 가장 많은 수치임.
- 노동부 관계자는 2009년 협약임금 인상률은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함.
  - 최근 일부 경제지표가 호전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으나 경기가 완전히 회복된 것

〈표 9〉 2009년 6월 말 임금교섭 타결 현황

(단위: 개소, %)

	사업장수(A)	타결사업장수(B)	타결률(B/A×100)	임금인상률
전 체	6,781 (6,745)	2,451 (1,804)	36.1 (26.7)	1.4 (5.1)
민간부문	6,506 (6,494)	2,408 (1,760)	37.0 (27.1)	1.4 (5.3)
공공부문	275 ( 251)	43 ( 37)	15.6 (17.5)	1.4 (2.6)

타결사업장	임금동결·삭감사업장				임금인상 사업장
	소계	비율	동결	삭감	
2,451	1,129	46.1	987	142	1,322
(1,804)	(149)	(8.3)	(131)	(18)	(1,655)

주: ( )안은 2008년 6월 말 자료.  
자료: 노동부.

은 아니므로 임금안정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

◆ 노동부, 2010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4,110원으로 결정·고시

○ 최저임금위원회(6월 30일)가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시간급의 2.75% 인상한 4,110원으로 의결하여 7월 7일부터 10일간 노사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에 의거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고시함.

◆ 비정규직법 사용기간 2년 제한조항 발효(2009. 7. 1)

○ 8차례(6월 19~29일)의 비정규직법 개정 관련 ‘5인 연석회의’가 결렬됨에 따라 2009년 7월 1일, 비정규직법 사용기간 2년 제한조항이 발효됨.

※ 2007년 7월 1일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으로 하는 비정규직법 시행

○ 비정규직법 개정과 관련해 노동계와 재계는 상호 상반된 입장을 표명함.

－ 민주노총(6월 30일)은 비정규직법이 어떤 형태로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 즉각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시행유예를 골자로 하는 비정규직 개정 추진에 전면 대응할 것을 분명히 함.

－ 한국노총(6월 30일)은 시행유예는 근본적인 비정규직 보호방안이 아니며, 시행유예는 정규직 전환을 애타게 기다려 온 840만 비정규직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하며 줄속적인 법개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함.

- 반면, 경제 5단체장(7월 2일)은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의 바람직한 해결책은 사용기간 제한 폐지이나, 시행시기를 유예해서라도 해고를 막았다면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가피하게 유예하더라도 하루 속히 통과시켜 달라며 비정규직법 개정 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발표함.
- 비정규직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간 입장차(與 유예안 고수, 野 유예안 불가)가 좁혀지 지 않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는 비정규직 근로자 해고에 대해 반발하고 있음.
  - 산재의료원에서 6월 30일 계약기간이 만료된 비정규직 근로자 29명 중 26명이 보 건의료노조 산재의료원지부 간부 3명과 함께 7월 1일부터 로비에서 농성을 계속 하고 있음.
  - 49개 여성·노동단체가 모여 발족한 생생여성행동은 7월 14일 국회 앞에서 ‘공공 기관 비정규직 해고 규탄 및 정규직화 촉구’ 집회를 열고, “정부와 한나라당은 비 정규직 사용기간을 확대하려는 모든 시도와 공공부문 ‘기획해고’를 중단하고, 정 규직화 지원금 즉각 사용 및 추가 확보,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 대책을 마련·시 행하라”고 요구함.
  - 7월 14일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와 전국공공연구노조는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 부에서 ‘정부출연 연구소 비정규직 정규직화 촉구’ 기자회견을 통해 ▲노사 공동 출연으로 정규직화 기금 조성 ▲상시적이고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의 즉각 정규직화 ▲사용사유 제한 등 비정규직 확산방지를 위한 법과 제도적 장 치 즉각 마련 등을 촉구함.
- 한나라당은 비정규직법 시행을 1년 6개월 유예한다는 당론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민 주당은 유예안은 불가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마련된 1,185억 원 규모의 정규직 전환지원금 집행이 늦춰지고 있고, 향후 비정규직 법 개정 에 대한 향방은 미루어 짐작하기 어려운 상황임.

◆ GM대우차 임금협상 합의

- GM대우차 노사가 7월 17일 제12차 임금교섭에서 임금동결 및 고용보장을 주요 골자 로 하는 임금협상안에 잠정합의함.
  - GM대우차 노사는 5월 21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7월 17일까지 모두 12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며, 금속노조 소속 완성차 4개 지부 중 올해 가장 먼저 임금협상 잠정합 의안을 이끌어냄.
  - 잠정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임금동결 ▲사측이 노조에 요구했던 임금 및 후생

복지 관련 9개항 모두 철회(① 기본급 10% 삭감, ② 미사용연차 통상임금 100% 적용(현행 150%), ③ 업무상 휴직자 평균임금 70% 지급(현행 100%), ④ 귀성여비 지급 중단, ⑤ 하기 휴가비 지급 중단, ⑥ 간식제공 중단, ⑦ 의료비 지원 중단, ⑧ 설, 추석 상품권 지급 중단, ⑨ 학자금 지원 중단) ▲ NEW GM의 핵심 사업장으로서 역할을 계속 수행 ▲ 고용안정 ▲ 내수판매 확대 ▲ 회사는 창원사업본부 ‘과건법’ 관련 소송 종료후 노조에서 협의 요청시 즉시 협의에 응할 것 ▲ 정비사업소 매각 계획 철회

○ 노조는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7월 21~22일)하였으며, 그 결과 66.3%의 찬성률로 잠정합의안을 통과시킴.

◆ 전국언론노조, 미디어법 개정에 반대하여 총파업 돌입

○ 미디어법 개정에 반발하고 있는 전국언론노조(7월 21일)는 16개 사업장 조합원 1,038 명이 참가한 가운데 미디어법 개정 저지를 위한 파업에 돌입함.

－ 언론노조(7월 20일)는 언론악법 폐기를 위한 3차 총파업 투쟁에 돌입한다고 선언하고, 7월 21일에는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언론악법 저지를 위한 4박5일 비상 국민행동에 돌입하며’ 제하의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과 국회의장은 직권상정으로 파국을 선택할 것인지 국민의 명령에 따를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며 “언론악법, 비정규직악법의 즉각 폐기”를 촉구하며 ‘언론노조 3차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함.

○ 신문법·방송법 등 미디어 관련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통과됨(7월 22일).

－ 민주당·민주노총·언론노조 등은 본회의 표결절차에서 대리투표 등의 하자가 있다며 원천무효를 주장함.  
 － 한국노총(7월 22일)은 “미디어법 등 날치기 통과를 규탄한다” 제하의 성명을, 민주노총은 “언론악법 날치기 원천무효” 제하의 성명을 각각 발표하는 등 미디어법 통과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함.  
 － 언론노조(7월 23일)는 지난 7월 22일 언론관계법 국회의결이 불법 대리투표·재투표 등의 하자로 원천무효라고 주장하고, ‘불법 대리투표·재투표 원천무효 선포대회’를 개최함.  
 － 한편, 노동부(7월 23일)는 언론노조의 “언론관계법 개정 저지” 파업은 목적, 절차 상 명백한 불법파업으로서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고, 민·형사 및 징계

책임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즉각 철회되어야 함을 밝힘.

※ 개정 미디어 관련법 주요 내용: ▲ 신문법: 일간신문과 뉴스통신의 상호 겸영 금지 폐지 ▲ 방송법: 대기업·신문·뉴스통신의 지상파 방송사 주식·지분 소유제한 완화(기준소유 불가능 → 10% 소유 가능. 다만, 2012년까지 경영권 행사 불가) 등

※ 그간 언론노조는 2008년 12월 26일~2009년 1월 7일(8일간) 언론관련법 개정 저지를 위한 1차 파업(MBC본부 위주, 1,075~1,429명 파업 참여)을 전개한 데 이어 2월 25일 국회 문방위 위원장의 언론관련법 개정안 직권상정에 반발, 2월 26일~3월 3일 2차 파업(MBC본부 위주, 997~1,257명 파업 참여)을 전개한 바 있음. **KLI**

(김복순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